

<2017년 1월 18일 수요말씀>

빛을 잡듯 실천해라. 순간의 판단과 실천이다

본 문 이사야 19장 1절

『보라 여호와께서 **빠른 구름**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
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이번 주 주일에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에 앞서,
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

그 말씀이 뭐였죠? (청중이 답하기를 기다렸다가)

네~~ “빛을 잡듯 실천해라.” 입니다.

◎ 오늘은 ‘빛을 잡듯 실천해라.’에 대해서
〈잠언과 설교〉로 풍성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. 깊은 말씀입니다.

<말씀 시작>

◎ 먼저 ‘핵심 잠언 7개’를 말씀해 주겠습니다.

- ◆ 모든 것이 ‘순간’에서 좌우된다.
- ◆ 모든 것이 ‘순간의 판단과 실천’에서 좌우된다.
- ◆ 큰일도 ‘순간의 판단과 빠른 실천’으로 결정된다.
- ◆ 큰 기회도 ‘순간의 판단과 빠른 실천’으로 잡게 된다.
- ◆ 동시에 따라가라.
- ◆ <생각>과 동시에 <몸>도 따라 행해라.
- ◆ 빛을 잡듯 실천해라.
- ◆ 빛보다 빠른 <생각>이 있으니, <빛>이 번쩍 하고 지나가도 <생각>으로 ‘순간 판단’하고 잡을 수 있다.
- ◆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 행하면, 전능자의 생각같이 빨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게 된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이제부터 본격적으로
 <빛을 잡듯, 순간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>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.

- ◆ 순간의 판단과 빠른 실천입니다!

<그 순간>은 돌을 공중에 던졌을 때
돌이 공중이 떠 있다가 내려오는 순간과 같습니다.

그 안에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됩니다.

◆ 순간의 판단과 빠른 실천입니다.

<그 순간>은 날아가는 새가
사람의 몸을 나무로 착각하여 앉았다가,
아니라는 것을 알고 순간 날아가기 직전과 같습니다.

그 순간에 판단하여 새를 잡듯 해야 됩니다.

평소 자기 소원을 놓고 예비하고 근신하며,
<순간의 판단과 빠른 실천을 한 자>만 얻습니다.

◆ 순간의 판단과 빠른 실천입니다.

<그 순간>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
자기 몸을 지나가는 순간과 같습니다.

이 잠깐의 순간에 판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.

◆ 새벽 정한 기도 시간에 일어날 때도 잠에서 깨서 눈을 떴으면,
순간 판단하고 순간 일어나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.

일어날 기회는 ‘순간’입니다.

그 ‘순간’을 놓치면, 다시 ‘잠’에 빠집니다.

◆ 새벽 제시간에 눈을 떴는데, 조금 더 누워 있었습니다.
이때 ‘영계의 한 장면’이 보였습니다.

두 사람이 어떤 일을 놓고 하느냐, 안 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.

이때 ‘한 사람의 형상’이 형성되고 있었는데,
선생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니
시계 초침이 가는 대로 ‘그 사람의 형상’이 점점 희미해지다가
사라져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

이 장면을 보고

‘새벽 제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,
<영적 세계의 일>이 형성되지 않는구나.
<육>을 통해 ‘영적 세계가 형성’되어
<육>으로 전달되는구나.’ 깨달았습니다.

즉시 육이 일어나서 행하니,
<영적 세계>가 형성되어 <육>으로 ‘말씀’이 전해져 왔습니다.

이것이 ‘오늘 말씀’입니다.

<육이 실천>해야 ‘영의 세계’가 형성되어 보이고 들립니다.

이 장면은 마치
땅에서 샘을 파서 물을 흐르게 하고,
나무를 심어 푸른 숲을 만들고,
수증기가 증발되어 구름이 형성되고,
때가 되면 비로 내려 땅을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.

영의 세계도 ‘순간’ 형성됩니다.
고로 ‘육이 순간 판단하고 실천’ 하라는 것입니다.

◆ <그 순간>은 대화할 때와 같습니다.

대화할 때 어떻게 하지요?

한 마디 하고, 한참 있다가 또 하지 않지요?

계속해서 다음 말을 이어 가면서 합니다.

그래야 대화가 되죠!

지금 하고 있는 말에 이어서

순간 다음 말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순간같이,

순간 판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.

<시간>과 같이 ‘할 일’ 이 가기 때문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누구든지 ‘순간 판단하고 실천’ 할 수 있습니다.

어떻게요? 기다리면서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

◆ 영계를 보니, 파도가 밀려왔다가 해변에 부딪히고
다시 밀려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.

그 순간에 물을 그릇에 떠 담듯, 순간 판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.

물을 얼마만큼 담을지, 순간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.

이미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

그러다 그때가 오면, 판단한 대로 즉시 실천하면 됩니다.

큰일도 이같이 ‘순간의 판단과 실천’ 으로 좌우됩니다.

단 ‘기다리면서 미리 준비’ 하라는 것입니다.

◆ 상대가 순간 “할 거야? 안 할 거야?” 했을 때,
“한다.” 혹은 “안 한다.” 대답할 수 있는 순간의 시간같이

모든 일이 ‘순간’ 으로 그때그때 흘러갑니다.

고로 미리 준비하고 생각해 뒀다가,

그때가 닥치면 즉시 판단하고 대답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.

- ◆ 홍수가 나서 급물살에 떠내려가는 자를 건지는 순간같이
여러분 앞에 ‘기회’ 가 오고 있습니다.

미리 준비했다가 그때가 닥치면 빛같이 움직여

준비한 대로 순간 판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!

- ◆ <정녕코 해야 될 일>인데 그 순간 빨리 못 하면,
1년 있다가 그 기회가 다시 오거나,
혹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야 그 기회가 다시 옵니다.

그러나 그때는 더 어렵고 힘들게 해야 됩니다.

기다렸다가 하니 실속 있게 실천할 수는 있는데
처음보다 더 값을 달라고 하고, 더 어렵게 얻게 됩니다.

애타게 기다리고, 기다리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자만
착오 없이 ‘그 순간의 기회’ 를 맞게 됩니다.

- ◆ 기회가 왔을 때 ‘순간의 시간’ 이지만,
누구든지 ‘순간 판단하고 실천’ 할 수 있습니다.

기다리는 긴 시간에

‘할까, 안 할까? 어떻게 할까? 얼마만큼 할까?’ 하면서

미리 생각하며 준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

누구든지 순간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.

- ◆ <기회가 왔을 때 순간 판단하고 실천하는 순간>은 파리가 순간 앉았다 날아가는데 순간 잡는 시간과 같습니다.

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, 짧지 않습니다.

이미 그 파리가 앉기를 기다리면서
잡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

이미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파리가 날아와서 앉으니,
즉시 판단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.

- ◆ 설교 때도 순간 듣고 못 깨달으면, 그냥 지나갑니다.
정신 차리고 예비하고 집중했다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.

한 번 기회를 놓치면

1년, 2년, 3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기회도 있습니다.

- ◆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심혈을 기울이고 심정을 다해 전해도
듣는 자가 같이 정신과 생각을 일체 시켜 듣지 않으니,
들어도 이해를 못 하게 됩니다.

콘센트와 플러그가 딱 맞으니 ‘전기’가 통하듯이,
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정신 차려야
주의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다.

- ◆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지요? 그러면서 <시간>이 갑니다.

인간도 <지구의 공전과 자전>을 따라서 살고,
그에 따라 흐르는 <시간>과 함께 삽니다.

고로 인간은 <시간>을 따라가면서 행해야 됩니다.

- ◆ 시간은 가는데,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.
그러면 나중에는 뛰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.
시간이 더 가도 앉아만 있으면, 결국 뛰어가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.

- ◆ <기회의 때>에 못 하면, 그 기회는 ‘땀 세상’에 가 있습니다.

미리 애타게 기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
자기 앞에 ‘기회’가 왔을 때,
어서 ‘순간 흐르는 시간’을 따라서
순간 판단하고 잡고 행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◎ 계속해서 <잠언>으로 조금 더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<먼저 할 일>을 먼저 해라.

초침, 분침, 시침 가는데 다 잡으려면 못 잡는다.

<초침> 먼저 잡고, 그다음에 <분침> 잡고,
그다음에 <시침>을 잡으면서 ‘그 시간에 해당되는 일’을 해라.

<먼저 할 것, 그 시간에 해당되는 것> 먼저 해라.

- ◆ 새벽에도 ‘먼저 할 것’ 먼저 하면서, 순서대로 하기도.

새벽에는 제일 먼저 ‘일어나기’ 다.
그다음에 ‘씻기’ 다.
그다음에 ‘성삼위께 인사’ 다.

그다음에 ‘말씀 받아쓰기’ 다.

그다음에 ‘기도 대화’ 다.

이것은 ‘선생 새벽 시간 순서’ 다.

저마다 다 순서가 있다.

<먼저 할 것> 먼저 해야 ‘다음 것’ 으로 이어진다.

먼저 새벽을 깨워 일어나라.

그래야 삼위와의 대화로 이어진다.

◆ <영의 세계>는 빨라서 ‘빨리 판단하고 실천하는 자’ 만 잡는다.

◆ <새벽 일찍 일어난 자>만 <새벽 일찍 지저귀는 새소리>를 듣는다.
늦게 일어나면 10년, 50년, 100년이 가도 한 번도 못 듣는다.

◆ <빛같이 빠르게, 일찍 실천하는 비밀>도
오직 ‘실천하는 자’ 만 알고 말한다.

안 해 본 자는 ‘빛을 잡듯 실천해라.’ - 이 말씀이
평~생 <생명의 말씀>이 될 수 없다!

◆ <실천한 자>만
생명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‘그 세계’ 에 모여 산다.

◆ <영적인 이야기>는 ‘영적인 자들’ 만 안다.
나머지 사람들은 ‘육적’ 으로 알아듣는다.

<전환>

- ◎ <실천한 자>만 알고 말하듯, <영적인 자>만 영적인 이야기를 안다.
- <마지막 이 잠언에 해당되는 말씀>을 조금 더 해 주겠습니다.

- ◆ <성경의 영적인 말씀>도 ‘육적인 말’로 써져 있습니다.

<영적인 자들>은 ‘영적’으로 듣고 행하고,
<육적인 자들>은 ‘육적’으로 듣고 행합니다.

결국 <영적인 것>은 ‘영적’으로 이루어졌고,
<육적인 것>은 ‘육적’으로 이루어졌습니다.

<아는 자들>만 ‘모르는 자들의 그릇됨’을 알고,
<영적으로 이루어진 역사>를 맞고 꿈을 이루며 갑니다.

<모르는 자들>은 계속 ‘육적’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.

그러나 <성경의 역사>는
<기다리던 자들>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갔고,
<아는 자들>만 아는 대로 이루면서 갑니다.

<아는 자들>은 ‘영적’으로 행하고 그대로 되었으니 확신합니다!

- ◆ <영적인 것>이면 ‘영적’으로 이루어집니다.

고로 <영적으로 알고 행한 자들>만
‘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’을 알고 따라갑니다.

<육적인 자들>은 ‘육’으로 안 이루어지니 계속 기다립니다.

계속 기다려도 ‘육’으로는 안 이루어지니,
그때는 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냐고 하기도 하고,
연장했다 생각하기도 하고,

연장했다면 왜 연장됐는지 하나님께 구하며,
계속해서 ‘육적’ 으로 풀면서 막연한 희망으로 삽니다.

◆ 가장 대표적으로

‘메시아는 구름 타고 온다.’ 는 말씀의 해석입니다.

<육적으로 푸는 자들>은

메시아가 ‘공중의 하늘 흰 구름’ 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.

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오시니,

“아직 시간이 안 됐다. 시대가 악해서 연장됐다.” 하고
교리를 바꾸면서 기다립니다.

<구름>을 ‘영적’ 으로 풀면 ‘사람’ 이니,

메시아는 ‘인구름’ 을 타고 와서

<따르는 자들>을 데리고 ‘시대 하나님의 뜻’ 을 펴고 갑니다.

그러나 <육적인 자들>은

“그것이 아닌데 저렇게 생각한다.” 하면서 배척합니다.

<영적인 것>은 ‘영적’ 으로 이루어지고,

<영적인 자들>만 ‘하나님의 뜻’ 을 알고 펴 나갑니다.

◆ <영적인 것을 100% 아는 자들>은

성경을 육적으로 해석하며 막연히 기다리는

전너편 구시대에 있는 자들의 무지를 이야기하며

마치 ‘초침’ 을 따라가듯 ‘새 시대’ 를 따라서 신속히 떠나갑니다.

◆ <육적인 자들>은 다 ‘육적’ 으로 보니, 둔합니다.

고로 <영적인 자들>이

‘기다린 시대 혼인 잔치 역사’ 를 하고 가도 전혀 모릅니다.

- ◆ <영적인 자>는 ‘하나님과 일체 된 자’이며,
<육적인 자>는 ‘하나님과 일체 되지 않은 자’ 입니다.

고로 <영적인 자>는 ‘하나님의 역사’ 를 찾고 펴며,
<육적인 자>는 ‘하나님의 역사’ 를 찾을 수조차 없습니다.

- ◆ <구약인들>은 ‘신약 앞에 육적인 자들’ 이라서
새 시대 메시아를 맞지 못했습니다.

<신약인들>은 ‘성약 앞에 육적인 자들’ 이라서
새 시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맞지 못했습니다.

지금 이 시대에
<영적인 것>을 ‘영적으로 보고 듣고 행하는 자들’ 만
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맞고,
<창조 목적 휴거의 역사>를 이루게 됩니다.

- ◆ <시대 말씀>을 들어야 됩니다!

<음식을 먹은 사람>과 <안 먹은 사람>을 비교해 봐요.

처음에는 별 표가 안 나는데,
시간이 가다 보면 알아보게 표가 납니다.

<음식을 먹은 사람>은 힘이 나서 계속 행하고,
<음식을 안 먹은 사람>은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쓰러집니다.

<이 시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>,
곧 <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주시는 시대 말씀>도 그러합니다.

<보낸 자를 알고 그 말씀을 들은 자>와 <그렇지 않은 자>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아보게 표가 납니다.

그 말씀을 못 들으면, 힘이 없어 주저앉고 쓰러지게 됩니다.
육의 삶뿐 아니라 영혼까지 그리됩니다.

- ◆ <물건을 손에 쥔 자>만 느끼지, <그렇지 않은 자>는 못 느낍니다.

<시대 역사>도, <하나님이 보낸 자>도
절대 ‘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’ 만 느낍니다.

- ◆ <모르는 자> 앞에서 ‘겉 이야기’ 를 해 보니,
장님같이 못 보고 귀머거리같이 못 들었습니다.

짐승보다 더했습니다. 췌덩이 같았습니다.

마태복음 13장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

“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

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.” 했는데,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.

- ◆ <모르는 자들> 중에서도 ‘조심할 자들’ 이 많으니,
아무에게나 ‘시대 복음’ 을 전하면 안 됩니다.

오히려 물어뜯어 상처를 입힐까 합니다.

이런 자들은 이야기를 해 보면 압니다.

- ◆ 인생들... 생활 속에서도 <아는 것>만 하고 가고,
<모르는 것>은 몰라서 못 하고 살아갑니다.

- ◆ <주>도 ‘맞은 자’ 만 맞고 가고, ‘못 맞은 자’ 는 못 맞고 갑니다.

- ◆ <목적지에 갈 자>만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
차가 오면 순간 타고 갑니다.

하나님의 역사도 <메시아를 찾기 위해 준비한 자들>만
메시아를 맞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
그 영이 홀연히 변화되고 성자께 붙어 성자를 따라갑니다.

그 시간은 마치 ‘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순간’ 과 같습니다.

<미리 준비했다가 ‘주’가 왔을 때,
순간 판단하고 실천하여 주를 따라가는 자들>은
파도가 밀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밀려왔을 때 윈드서핑을 하며
파도를 따라가는 자와 같습니다.

- ◆ 일출도 ‘해가 뜨는 순간’에 봅니다.
그러나 ‘예비하고 기다린 자’만 봅니다.

그 장소에서 기다렸던 자도
줄든지, 그 시간에 화장실에 가 있으면 못 봅니다.

미리 화장실에 다녀오고 일출 볼 준비를 했다가
해 뜨는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봅니다.

화장실에 갔다는 것은 ‘회개하는 것’과 같습니다.
<회개하는 시간>에는 ‘주’가 와도 못 봅니다.

고로 ‘주’를 맞으려면,
그 전에 다 회개하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맞아야 됩니다.

그러면 순간 해 뜨는 것을 보듯, 그 순간 ‘주’를 맞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마지막으로 ‘귀한 잠언’을 몇 개 더 말씀해 주고 마치겠습니다.

◆ 사람은 <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>을 듣고
그 <영>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‘영원히 존재할 가치’가 못 된다.

◆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의 말을 듣고
‘사랑으로 변화’되지 않고서는
‘그 남자와 일생 동안 같이 살 가치 있는 자’가 못 된다.

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생들도 그러하다.

<하나님의 말씀>을 듣고 <하나님의 생각>으로 변화되어
그 육도 영도 ‘사랑의 대상체’로 변화되지 않으면,
그 <영>이 ‘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자격’이 안 된다.

<하나님의 말씀>을 듣고 행하여 ‘사랑의 대상체’로 변화된다면,
그 <영>이 ‘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자’가 된다.

◆ 하나님 앞에 ‘사랑의 대상 자격’이 되느냐, 안 되느냐는
육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
영이 얼마나 변화됐느냐에 따라 좌우된다.

또한 하나님과 성령의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좌우된다.

고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!

하나님과 성령의 마음이 감동되도록
간구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며 교통해라!

- ◆ 어떤 집에 가더라도
‘하룻밤이라도 자고 올 수 있는 여건과 자격’ 이 돼야
주인이 자고 가라고 한다.
- ◆ <황금성 천국>도 ‘황금성에 있을 가치’ 가 있어야 들어가게 된다.
- ◆ <황금성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가치>는
‘온전한 신부로 변화된 사랑’ 이다.
- ◆ <휴거>는 ‘사랑’ 으로 형성되고 변화되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.
- ◆ <휴거>는 뒤집으나 앞으나 ‘온전한 사랑’ 으로 형성되어 있다.
- ◆ <앞>은 ‘금덩이’ 인데 <뒤>는 ‘은 덩이’ 라면,
그 사람은 ‘하늘 신부 자격을 갖추는 과정 중에 있는 자’ 다.
- ◆ 완전하게 변화되어라.
- ◆ 결작 하나도 아쉬움 없이 형성되어 있다.
<황금성 천국에 들어갈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>는 어떠하겠느냐.
아쉬움 없이 온전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.
- ◆ <성령>은 ‘온전한 감동’ 을 주시나,
<그 감동을 받는 자>가 온전해야 감동도 온전히 받는다.
<받는 자>가 온전하지 않으면 ‘부분적 감동’ 만 받는다.
- ◆ <성령>은 주와 함께 ‘사랑을 목적’ 하고 오는데

<너>는 ‘판 것’ 으로 맞으면,
거기 채워 줘야 될 것만 채워 주고 떠나간다.

<사랑>으로 맞아야 대화하고 붙어 산다.

- ◆ 성령을 맞으려면 <주일말씀, 수요일말씀, 새벽 말씀, 계시 말씀>을 전적으로 읽고 마음에 새겨라. 그리고 물어라. 그러면 대답하신다.
- ◆ 여기까지 말씀을 쓰고 마지막 잠언은 성령님께 해 달라고 하니, 성령님이 말씀하셨다.

“<술뚜경을 열고 덮는 자>가 ‘주인’ 이다.

음식을 만들 때 술뚜경을 열고 음식물을 넣고,
그다음에 술뚜경을 덮고 음식을 익힌 후에 다시 열지 않느냐.

그가 ‘주인’ 이다.

마지막 이 말씀이

‘말씀을 다 만들고 먹으려고 술뚜경을 여는 것’ 과 같다.

<내게 이 말씀을 받은 자>가 ‘주인’ 이다.

따르는 자들이 그와 더불어 삼위를 모시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.”

◎ 말씀 마쳤습니다.